

[종합·해설]

신임 김 윤 석 광주시 정무부시장

“기업 능가하는 서비스로 광주에 기업 끌어들일 터”

“자치단체가 기업 이상의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찾아 오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1등 광주’ ‘부자 광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사는 광주 만들기’를 꿈꾸며 문화수도 광주 만들기와 부자광주 만들기를 두 축으로 청정환경과 첨단산업, 문화예술을 잘 버무리다면 일자리 13만 4천개 만들기 등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1등 광주의 열매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남 출신인 김 부시장은 대입 검정 고시를 통해 방송통신대를 졸업했으며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26년간 경제기획원 예산실과 물가정책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등 경제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부시장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현안사업 국비확보와 국내외 투자유치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취임식은 다음달 2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20일 부임한 김 윤석(53·사진) 광주시 정무부시장은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인재와 연구·개발 인프라 등 산업여건이 뛰어난 점도 있다며 수도권에 밀리지 않는 투자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주변의 스탠포드 대학과 산학협동을 통해 발전했던 것처럼 광주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와 시민들의 열린 개척정신이 투자유

치와 경제살리기에 최대의 장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 부시장은 광주의 당면 현안으로

전남 농수산물 日서 호평

동경식품박람회서 활전복·무안 양파주스 등 수출 약정

전남지역 농수산물이 동경식품박람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동경식품박람회에 도내 6개 업체가 참가해 이 가운데 전남부역이 활전복을 일본 유도센보 회사와 16만달러(40억t) 어치를 수출키로 약정을 체결했다.

또 면류 생산업체인 무안의 (주)범우는 현지 식품 수입업체인 ‘마리노 트레이딩(Marino Trading)’사로부터 4천만엔의 자본투자 지원을 확정받았다.

나주시의 (주)가보농산에서 출품한 ‘프로플리스류’는 일본 내 디아이트와 건강

식품을 주력으로 한 ‘Sunny Health’사와 집중적인 수출상담을 진행,업체 관계자가 현지 공장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수출 전망을 밝기 했다.

또 무안 현대영농조합법인의 양파주스, 장흥 HC비이오렉의 합초소스, 신안의 (주)백년초와 황토이야기의 미용제품 등도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동경식품박람회의 수출 상담실적은 모두 1천500여만달러로 아시아권의 다른 박람회보다 성과가 좋아 일본시장의 집중적인 공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전업농 지원 농가등록제 실시

농림부, 농가별 소득보전 방식 직불제 전환

한미FTA 등 반영 119조 규모 투·융자 사업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정의 기본 토대가 될 ‘농가등록제’가 시행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 품목별 가격 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직불제)가 농가별 소득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업농 지원과 농식품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수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119조 규모 투·융자사업 규모도 늘어난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07년

도 농림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참여단에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등록 프로그램 개발을 6월까지 마쳐 올해 하반기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9년 전체 농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 등록제는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을 조사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게 된다.

대표적 농가 소득 안정책인 직접지불제(직불제) 역시 농가등록제와 맞물려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직불제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거나 영농 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2009년 농가등록제 본격 시행 시점에 맞춰 밭·밭과 수농사와 축산 등을 포괄하는 보다 체계화된 직불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축소가 필요한 과수 소득보전 직불제 등은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제에 흡수하고 농가등록제 시행 이후 취미·부업농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은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되고 FTA 이행 특별법도 손질된다. /연합뉴스

평양 영화촬영소 찾은 ‘주몽’ 평양을 방문 중인 MBC 인기드라마 ‘주몽’의 배우들이 19일 오후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방문해 1950년대 한국의 거리를 형상화한 세트장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송일국, 전광렬, 오연수·한해진·이계인.

평양을 방문 중인 MBC 인기드라마 ‘주몽’의 배우들이 19일 오후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방문해 1950년대 한국의 거리를 형상화한 세트장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송일국, 전광렬, 오연수·한해진·이계인.

■ 현장과 시각 ■

이러고도 문화수도인가



김주정
사회 1부 차장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은 아무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한 블럭 전방에서 교통경찰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 U턴을 하는 차량… 제 고향 광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첨단지구까지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시 깜빡이를 하는 택시는 단 한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최근 고향인 광주를 방문한 ‘류강씨’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그는 “횡단보도에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무섭게 달려드는 차량, 시내 주요 도로는 물론 보도까지 점령한 불법주차 차량, 양보를 해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 운전자를 보면서 ‘불친절’이라 단어를 떠올렸다”며 “마음이 아름다운 광주를 만 들어 달리”고 적었다.

요즘 광주시내 거리는 어수선하고, 불편하고, 짜증까지 난다. 주요 도로는 물론 주택이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하다.

광주 최대의 업무 지구인 상무 신도심은 시청 앞에 525면의 지하 주차장이 있으나, 운전자들은 이곳을 외면하고 있다. 북구 일곡동 ‘파드앤파드’ 앞,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은 2~3층 주차로 시내버스 등 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다. 시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U턴·신호위반·시도 때도 없는 경적 울리기 등의 악순환이 광주 도심에서 계속되고 있다.

총장로나 상무지구, 전남대 후문 등지는 저녁이면 불법 광고물로 넘쳐난다. 갈비단막 새로 문을 연 나이트클럽의 전단지가 도배돼 있고, 가로수엔 앙상 웃자립의 여자 사진들이 나부끼다. 눈 둘 곳이 없어 고개를 돌리지만, 확자지한한 호객 소리와 꺾전을 파고든다.

광주의 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시민 개개인은 물론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광주시와 자치구의 의견으로 견인 업무 환원이 차질을 빚으면서, 금년들어 3개월째 불법주차 견인이 사실상 중단된 덕분(?)에, 대로변에 차를 대는 것은 자연스런 주차문화가 됐다. 선거철만 되면 민원인들의 표를 의식해 느슨해지는 기초질서 단속도 한몫했다.

불법주차 견인만 해도 지난 2005년 3만9천393건에서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해 3만2천494건으로 17.5%나 줄었다. 불법광고물 단속도 2005년 1730만7천496건에서 2006년엔 807만5천304건으로 2배 이상 급감했다.

제88회 전국체전과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는 때맞춰 노인들까지 동원해 불법 주차와 불법 광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광무원들이 나서도 안 되는 일이 노인들에게 맡겨서 과연 해결될까? 보다 근본적인 행정 대책과 시민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jjnews@kwangju.co.kr

공무원 ‘퇴출제’ 일파만파

중앙정부도 도입 신중 검토…부산시 인력 5% 감축 계획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무능공무원 퇴출제’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급 지자체에서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퇴출제가 주제라면 행자부

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직과 인사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관광하는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여론의 항해와 퇴출제의 합의 등을 신중히 분석한 뒤 중앙정부도 퇴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퇴출제가 도입되면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 종합부동산세 후폭풍,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등과 함께 대선정

국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무원 퇴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도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한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력을 5% 감축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일 공직사회에 온정주의와 무사안일, 도덕적 해이, 연공서열형 인사 등 관행을 깨는 조직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온갖 고지 않는 편안함, 소리없는 편안함

OPEN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은 다양한 침대와 소파, 그리고 다양한 가구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대는 다양한 모델과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소파는 편안한 앉기감과 함께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 가전제품과 화장실 용품 등 다양한 생활必需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은 고객님의 편안함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절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행복한 허리]

당첨자는 당첨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종합동 다이빌딩 상가 입대!

당첨자는 당첨자에게만 해당됩니다.